

■ 호남선 KTX 구간별 소요시간



송정 출발 93분이면 용산역...광주~서울 출퇴근 가능

<최단시간>

오늘 개통식 내일부터 공식 운행

호남과 영남의 속도격차가 해소되는 데 꼭 11년이 걸렸다.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말이 나온 이래 11년 만에 호남고속철도가 정식 운행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주시 등은 "1일 오후 3시 광주 송정역에서 호남선 KTX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호남선KTX 1단계 구간인 충북 오송~광주 송정 182.3km은 지난 2009년~2014년까지 총 8조 3529억원(차량 구입비 7360억원 포함)을 들여 신설됐으며, 이번 개통식 이후부터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송정역에서 정읍역(50.5km)까지는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고, 정읍~익산(42.1km) 12분, 익산~광주(46.0km)14분, 광주~오송(43.7km)13분 등으로 10분 이내면 이웃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광주 송정~서울 용산간도 종전 2시간39분에서 1시간46분 단축돼 최단 1시간33분이(평균 1시간47분) 걸린다.

목포~용산은 최단 2시간15분(평균 2시간29분), 여수엑스포~용산은 최단 2시간46분(평균 2시간27

오송~송정 8조3000억 투입 개설

목포·여수~서울 55분·39분 단축

신형 열차 배치 편의·안전성 높여

분)으로 기존보다 각각 55분과 39분이 단축된다.

요금은 송정~용산 4만6800원(기존 3만8600원), 목포~용산 5만2800원(4만4700원), 여수엑스포~용산 4만7200원(4만6000원) 등이다. 주말 기준으로 68회 운행되며, 송정~용산 16회, 목포~용산 32회, 여수엑스포~용산 20회다.

이동시간이 좁혀지면서 광주~서울간 직장생활 권으로 묶일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가로 출퇴근하는데 평균 1시간16분이 소요되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10여분만 더 추가하면 KTX를 타고 광주의 직장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선에는 신형 KTX 열차가 배치된다. 전체 좌석수는 기존 KTX산천(363석)보다 47석 늘어난 410석으로 수송능력이 13% 증가했다. 일반실 좌석의 무릎공간도 57mm 넓어졌고, 전 좌석에 전원 콘센트를 설치해 배터리 걱정없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안전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제동력 확보를 위해 최첨단 3중 제동시스템이 채택됐으며,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사고 등에 대비해 자동정차 하도록 하는 기관사 운전감시 시스템도 구축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호남선KTX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기존 고속철보다 업그레이드한 열차 등 각종 시설물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교통수단별 소요시간



광주시 30개 대책 추진

혁신도시행 직행버스 투입·문화전당 연계 아트투어 운행

광주시는 호남고속철도(KTX)가 개통에 맞춰 교통과 문화·관광, 도심 정비 등 5개 분야 30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광주송정역을 경유하는 시내 및 시외버스의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KTX개통을 맞아 관광상품 개발 등 손잡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KTX 정차역 주변 빈집과 폐가를 정비하고 준비사항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광주송정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고, 3개 노선은 조정되거나 구간을 연장해 송정

역을 경유한다. 송정역 건너편에 승차전용 택시승강장이 조성되고 주변 도로 확장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내버스 연계환승체계도 강화했다. 이달부터 첨단~송정역을 연결하는 송정33번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에 들어간다. 5월부터는 조선대에서 광주송정역, 광주전남혁신도시(35km) 구간에 고급직행좌석서비스(02)가 투입된다. 광주공항버스도 노선을 조정해 송정역을 경유하게 된다. 광주송정역에서 나주 혁신도시를 오가는 택시요금은 우선 30%

할인요금을 받기로 했다.

시는 KTX 개통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꼽히는 관광과 문화 분야의 체질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KTX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연계한 아트투어(남행열차)는 5월부터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북이 연계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 관광정책 발굴과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광주 송정역 주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빈집과 폐가 166채에 대한 정비 등도 추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송정역~서남권 8개 시군 시외버스 운행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광주송정~용산) 개통에 맞춰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서남권에서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4월 2일부터 개시한다.

대상지역은 주로 송정역과 연계되는 영광, 나주(혁신도시), 무안, 함평, 목포, 영암, 해남, 완도 등 8개 방면 4개 노선으로, 1일 17회 운행한다.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송정역~영광 방면 1일 8회, 광주~

송정역~무안~함평~목포 방면 1일 3회, 광주~송정역~나주~무안~목포 방면 1일 3회, 광주~송정역~나주(혁신도시)~영암~해남~완도 방면 1일 3회를 각각 운행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시외버스 정류장을 송정역 입·출구쪽에 배치하고, 여름철 직사광선과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난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주관으로 열린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경제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지역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6차 산업 활성화·남도 여행상품 개발 시급”

한은 광주전남본부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경제 발전전략’ 세미나

광주·전남이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광주송정역을 호남지역 통행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등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행상품 개발 및 음식의 브랜드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는 방안도 나왔다.

지난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개최한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경제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호남권과 수도권의 접근성 계고로 양 지역 모두 방문객이 증가하고, 영남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속버스 운행 축소와 항공노선 폐지가 예상된다"면서 "인근 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이 제고될 경우 KTX 광주송정역이 호남지역 통행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 본부장은 이에 따라 KTX 노선 확대에 대응한 지역간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고 KTX 정차역 및 주변 지역을 고려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KTX 개통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의 산업별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이 날 이 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TX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 생산유발효과는 약 2949억원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68억원), 운수업(460억원), 여행·문화서비스업(354억원), 농림수산업(292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는 4155

명으로 농림수산업(1283명), 음식숙박업(655명), 도소매업(620명) 등의 순이다.

이 과장은 KTX 개통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농림어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6차 산업 활성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 개발 ▲남도 고유의 맛과 특색 있는 음식의 브랜드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축제 및 문화이벤트와 KTX를 결합한 테마상품 개발, 방문목적 및 고객수요에 맞춘 다양한 숙박시설 마련, 광주송정역과 광주도심 및 주요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체계 및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등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광주송정역 주변 환경개선, 서울 인사동 삼지길 등과 같은 원도심권을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 재정비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상호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윤기현 광주시 교통정책과장, 정하욱 광주발전연구원 도시기반정책연구실장, 윤종환 코레일 광주본부장, 장우남 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장 등이 KTX 개통에 따른 영향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이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계고로 지역 문화관광산업이 보다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역사권 개발 등을 통해 광주송정역이 호남권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2015. 3. 17 TUE - 4. 21 TUE
www.venture-visitkorea.com

참가자격
예비창업사업부문: A그룹(해내리): 관광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 B그룹(빛내리): 창업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창조관광사업부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업종, 업력 무관)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참조

참가형태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응모방법 참가신청서: 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작성
사업계획서: 지정 사업계획서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작성 후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송부
우편접수처: (121-840)서울시 마포구 여울마을로 35(서교동) 5층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02-6395-3127)

※ 온라인 접수의 경우 4월 21일(화) 15:00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18:00 까지 운영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수상자혜택
예비창업사업부문: A그룹(해내리): 총 20여개 사업, 개별 사업회차금 2,500만원 지원(사후정산) B그룹(빛내리): 총 20여개 사업, 개별 사업회차금 2,500만원 지원(사후정산)
창조관광사업부문: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창조관광사업자 대상 관광기금 특별 용자 허용

※ 수상 이후 사업화 추진실적 중간평가 및 성과에 따라 부분별 우수사업자 정부 시상 및 상금 지급 (총 상금 2억여원 상당 / 전액 현금)
※ 예비창업사업 및 창조관광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선정 가능(최종 투자여부는 투자조합에서 심의·결정)
※ 창조관광사업부문은 별도 사업회차금 지원 없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관광공사